N.E.W. SEMINARY 학습 가이드

나훔과 하박국: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Hoon Kim 목사, 2026년 10월 20일, 나훔 1:1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10-20-new-nahum-1-nahum-and-habakkuk-gods-mercy-and/

학습 가이드

학습 교재: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핵심 진리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압제자들에게는 의롭고 언약적인 보복을 집행하시며, 고통받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선지자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핵심 구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개역한글)

배경 이해

1. **지정학적 도가니:** 주전 7세기(주전 600년대) 동안 고대 근동은 거대한 초강대국들의 교체를 겪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앗수르 신제국은 아슈르바니팔 치세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엘람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하여 주전 612년에 함락시켰고, 이로써 나훔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2. **언약적 질투(*Qanna*):** 나훔 1:2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정체성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신실한 남편의 관계로 맺어져 계십니다. 외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짓밟을 때, 하나님의 보복은 자신의 신부를 지키기 위해 개입하시는 남편의 거룩하고 사랑에 찬 응답입니다.
3. **공식 선포로서의 복음(*Euangelion*):** 나훔 1:15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전하는 자의 발을 선포합니다. 고대 근동과 그레코로만 시대에 *euangelion*(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승리, 압제자의 몰락, 또는 새 통치자의 즉위를 알리는 공식적인 국가 선포를 뜻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훗날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악을 결정적으로 멸하신 참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4. **선지자적 탄식과 계시:** 하박국은 참된 성경적 믿음에 솔직한 탄식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선지자는 유다 내부의 폭력과,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만은 스스로 파멸을 부를 뿐이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하박국 2:4)는 계시로 응답하십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말씀 이해:** 자신의 신부를 지키시는 신실한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훔 1:2에 나오는 하나님의 두려운 보복에 관한 표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2. **주제 탐구:** 요나서의 결말(요나 4:11)과 나훔서의 결말(나훔 3:19)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완전한 균형을 함께 보여 줍니까?
3. **성경 연결:** 요한계시록 6:9–11과 8:3–5에 따르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4. **선지자적 상상력:**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묘사하기 위해 생생한 감각적 묘사(붉은 방패, 채찍 소리, 달리는 말, 황폐해진 사자의 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적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 오늘날 겉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5. **개인 적용:**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아 보일 때 날것 그대로의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안고 정직하게 선지자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잔혹함으로 돌아갔을 때 나훔을 통해 의로운 언약적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7 · 개역한글).

가르침 개요

강의 개요: 목록 기초: 나훔과 하박국

본문: 나훔 1:1–15; 하박국 1:1–13
핵심 메시지: 회개하는 자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압제자들에게는 의로운 언약적 보복을 집행하시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선지자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첫째 단락: 지정학적 격변과 언약의 남편

- **핵심 본문:** 나훔 1:2; 이사야 37
- **강의 요점:** 주전 7세기 선지자들은 잔혹했던 앗수르 신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기에 사역했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부부간의 언약적 질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포식자에 맞서 억압받는 신부를 지키시는 신실한 남편으로 일어서십니다.
- **핵심 통찰:** 하나님의 보복은 감정적인 자제력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신원을 가져다주는 의로운 공의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01 (소선지서의 주제들), 시각 자료 103 (앗수르 포로 지도), 시각 자료 104 (니느웨 도성), 시각 자료 105 (나훔 1:2 말씀).

둘째 단락: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기도의 영적 원리

- **핵심 본문:** 나훔 1:7; 요한계시록 6:9–11; 요한계시록 8:3–5
- **강의 요점:** 성도는 압제를 당할 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향해 향연처럼 피어오르고, 땅에 쏟아지는 불로 응답됩니다.
- **핵심 통찰:** 지역 교회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실시간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공의를 집행하고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환난 날의 산성), 시각 자료 2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셋째 단락: 백 년의 간격: 끝없는 긍휼과 확실한 심판

- **핵심 본문:** 요나 4:11; 나훔 3:19
- **강의 요점:** 요나(주전 약 760년경)와 나훔(주전 약 660년경)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한 성품의 상호보완적인 두 측면을 보여 줍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백 년 뒤 니느웨가 다시 고질적인 잔혹함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굽힘 없는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 **핵심 통찰:** 하나님의 성품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관되십니다. 요나는 은혜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고, 나훔은 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09 (요나와 나훔의 비교), 시각 자료 3 (은혜와 공의의 질문).

넷째 단락: 시적 예언과 패망의 복된 소식

- **핵심 본문:** 나훔 1:15; 2:2–3; 3:2–3
- **강의 요점:**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영구한 평화를 알리는 공식적인 복된 소식, 곧 *euangelion*(유앙겔리온)으로 선포합니다. 나훔은 선명한 시각적 색채(붉은 전사들, 번쩍이는 병거)와 청각적 효과(채찍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사용하여 선지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심판의 확실성을 확증합니다.
- **핵심 통찰:** 정복할 수 없는 사자의 굴처럼 자랑하던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결 앞에 철저히 뒤엎어질 것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12 (주전 7세기 선지자들), 시각 자료 113 (나훔과 소선지서), 시각 자료 4 (평화의 복음).

다섯째 단락: 하박국의 선지자적 대화

- **핵심 본문:** 하박국 1:1–4, 13; 하박국 2:4
- **강의 요점:** 바벨론 제국이 앗수르를 대신하여 일어날 때, 하박국은 솔직한 선지자적 기도로 유다 내부의 불의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해하기 힘든 섭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 **핵심 통찰:** 선지자적 기도는 인간의 고뇌를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권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무너져 가는 제국들 한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19 (주전 7세기 연대표).

결단과 적용

성도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내려놓고, 의로운 공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 동참하며,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자의 산성이 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도록 권면하십시오.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